보리에 이를 때까지 보살도 실천 서원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⑤ 십대수장(十大受章)

이때 승만 부인은 부처님이 주시는 수기를 듣고 공경히 서서 열 가지 큰 서원을 세웠다.

1.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받은바 계(戒)에 대하여 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어른들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3.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모든 중생에 대하여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4.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그들이 가진 소유물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5.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안팎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6.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지 않을 것이며, 무릇 받는 것이 있다면 모두 가난하고 곤궁한 중생들을 위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7.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위하여 사섭법(四攝法)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애욕에 물들지 않은 마음과 싫증을 내지 않는 마음과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거두어들여 교화하겠습니다.

8.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만약 고독한 사람, 갇혀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등 온갖 고통과 재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잠시도 버리지 않고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하여 의리로써 이롭게 하고 그들을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 그들을 보내겠습니다.

9.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잡거나 기르거나 하는 나쁜 업과 갖가지 계를 어기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마땅히 길들일 사람은 길들여서 거두어들이겠습니다. 순종하도록 길들여 거두어들임으로써 법(法, 진리)이 영구히 머물게 되고 법이 영구히 머물게 되면 천상의 사람과 인간 세상 사람이 많아지고 악도 중생이 줄어들어 능히 여래가 굴리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따라 구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익 때문에 거두어들이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10.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정법을 지녀 마침내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잊어버리면 대승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대승을 잊는 것은 바라밀다를 잊는 것이며, 바라밀다를 잊는 것은 대승을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살이 대승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법을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며, 기꺼이 들어가려 해도 길이 범부의 자리를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큰 잘못을 보았고 또 미래에 정법을 거두어들일 보살마하살의 한량없는 복과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크나큰 이 열 가지 받아 지녀야 할 것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서원인가. 지고지순(至高至純)한 마음을 발하여 세상을 감동시키는 장면이다.

이 장을 〈승만경〉의 십대수장(十大受章)이라 한다. 10가지 큰 서원을 발하는 장면인데 '10대수'라 하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부처님을 찬탄하고 수기를 받은 인연이 대승의 큰 서원을 발하게 했는데 이 대승의 서원이 부처님의 본원과 같으므로 부처님으로부터 승만 부인에게 전해졌다는 것이다.

승만 부인의 서원은 모두 오늘부터 보리에 이르기까지, 곧 성불할 그때까지 대승의 보살도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하여 하겠다는 것은 이타 원력을 근본으로 하는 보살의 대원이다. 〈화엄경〉에도 "자신을 제도하지 못하더라도 남을 먼저 제도한다."(自未得度先度他)는 말이 설해져 있다.

사섭법은 보살이 중생을 거두어들일 때 쓰는 네 가지 교화법이다. 보시섭(布施攝)은 보시행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이고 이행섭(利行攝)은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여 거두어들이며 애어섭(愛語攝)은 말을 친근감이 가게 상냥스럽고 부드럽게 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동사섭은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중생을 위해 어려운 일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이다. 이 장에서는 또 부처님의 정법이 대승이라 하여 대승이 바로 부처님의 정법임을 천명해 놓았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관세음보살은 이타구세 신앙·수행

〈利他救世〉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㉘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자 여러분! 〈대품반야경〉과 〈반야심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반야의 지혜를 완성한 보살임으로 '지혜의 완성자'로 표현하고 지혜를 설하는 보살임으로 "지혜의 실천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품반야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삼매를 얻어 신통자재하며 대원을 섭수하고 부처님을 도와 불사를 지으며 법륜을 굴려 무량한 중생을 구제한다"고 설한 내용에서 지혜의 완성자이며 지혜의 실천자임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야심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은 반야의 지혜를 깊이 깨닫고 중생들에게 반야바라밀을 강설하는 보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야경〉 계통의 경전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고 중생에게 지혜를 설하는 지혜의 완성자, 지혜의 실천자로서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에서의 이러한 표현과 증명들은 지혜를 완성한 중생 세계의 구세자는 분명히 관세음보살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중생들은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해야만 구원과 성불을 함께 성취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며 증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상의 내용과 같이 관세음보살님은 서원과 자비행의 끝없는 실천을 하시는 구세자이며 구원자입니다. 지혜를 완성하고 지혜를 실천하며 일체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원하는 대보살님입니다. 중생 속에 함께 살며 중생과 함께 일하고 모든 부처님을 대신해서 일체중생을 교화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하고 중생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며 중생의 행복한 삶을 이루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생의 원력과 욕망과 근기에 맞추어 때론 33응신으로 때론 34응신으로 다양한 변화력으로 응현(應現)하시면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성불을 이루신 대보살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위신력과 가피력과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수많은 대보살들 중에서 관세음보살은 대비행의 구세자로서, 지혜의 실천자로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신앙의 귀의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믿고 신앙하며 수행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신앙적 가피를 얻으며 중생구제의 대승보살도를 완성하며 성불을 이루는 관세음보살의 신앙은 세상을 널리 구하며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구세(利他救世)의 신앙이며 수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신앙하면 우리들의 현실적인 괴로움을 제거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 수행을 통해 일체중생을 구제하며 스스로 갖추어진 지혜를 발현시켜 나간다면 진여본성과의 합일을 이루는 궁극적 성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앙과 수행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들은 분명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보살도의 완성을 통해 성불을 이루는 관세음보살 신앙과 수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인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⑤ 사대는 아무것도 모른다

스스로 아닌 오온 움직이기 때문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에 정신을 쓰고, 정신을 써야 할 것들에 정신을 쓰지 않음으로써,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번뇌가 성장한다. 그는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쓴다.

〈모든 번뇌의 경〉

어떠한 생각을 일으켜도 생로병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 생각을 일으킬수록 복잡해진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생각이 어디서 출발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저 지켜보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보면 그대로 답이다. 따로 무얼 하는 게 아니라 멈추는 순간에 모든 것이 확연하지만 우리가 그 찰나를 놓쳐버릴 뿐이다.

나는 과거세에 있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없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어떻게 지냈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 나는 미래세에 있을까? 나는 미래세에 무엇이 될까? 나는 미래세에 어떻게 지낼까? 나는 미래세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변할까? 또는 현세에 이것에 대해 의심한다. 나는 있는가? 나는 없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있는가? 이 존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든 번뇌의 경〉

우리의 생각을 읽어보자. 경전을 공부하면 몇 년 후에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수평선을 그리지 않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도 삼세를 분주히 오고간다. 생각 속에 우리가 있는가? 생각이 생로병사를 넘어섰는가? 이것이 고(苦)라는 것이 바르게 보였는가? 존재를 끈질기게 생각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오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물이라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원래 물이었는데 얼어서 얼음으로 살고 있다. 얼음이 녹으면 다시 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녹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형상을 유지하면서 물을 알려고 한다. 얼음의 딱딱함으로 물의 부드러움을 알고자 하는 오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얼음이 완전히 녹지 않고서는 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얼음은 물에서 생성되었지만 물을 모르는 것이다. 얼음 틀의 형태가 다양하다면 여러 가지 모양의 얼음들이 생겨날 것이다. 별,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제각각의 얼음들이 녹으면 하나의 물이다. 얼음이 녹은 물 속에서는 어떠한 형태도 찾아 낼 수 없다. 구분이 없다.

우리도 이와 같다. 나는 있는가? 나는 없는가? 이렇게, 스스로가 딱딱함으로, 무언가의 표현으로 남아 있는 한 그 물 자체인 스스로를 알 수가 없다. 성품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만들어졌지만 성품을 모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소리로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면 끝끝내 계합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이 공부를 마친 자들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할까? 우리의 사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사대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사대는 '그것'과 만날 수 없는 공간에 있다.

무게도 없고, 부피도 없으니 저울이 있어도 무게를 달 수 없네. 세상은 부류가 있고 등급이 있지만, 이것만은 부류도 없고 등급도 없네. 한 평생 보내는 일, 눈을 감을 수도 눈을 뜰 수도 없지만 세상일 눈을 뜨고 본들, 눈을 감고 본들, 매한가지일 뿐 다르게 아는 바가 없네. 해 뜨고 해 지는 일 매일 매일 일어나고, 밥 먹고 자는 일 또한 매일 매일 일어난다. 여기에 모든 진리 함축되어 있으니 다른 일 접어두고 이것에 무심해지면 따로 기특한 일 없음을 알 것이네. 저울에 숫자는 있지만 그 숫자 움직인들 그것은 숫자로 보일 수 없네. 1kg, 10kg, 100kg 다시는 자신을 보일 수 있는 방법 없어 그것과 시름하지 않으니 근심이 없다고 함이 없네. 이제부터 보내는 하루하루 처음이고 끝이니 참으로 묘용이 따로 없다. 없는 말, 없는 소리 한없이 내어본들 듣는 이 번잡하게 하는 일, 그 일 수고롭게 하지 않은 것은 유마거사 침묵의 힘으로 문수보살에게 보여주니 정말로 무게 없는 무거움을 알았으리라.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통증서 벗어나 몽골 이주민 울타리 되고 싶어"

몽골 출신 아리오나씨 퇴글긴 교통사고로 목·허리 크게 다쳐
통역사 활동 등 이주민 지원 자처…사고 후 매일 끔찍한 고통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